

보살도 요괴도 한 생각의 근본은 '본래 없음'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㉔ 요괴와의 금란가사 쟁탈전

용마 탄 현장법사, 고삐 잡은 손오공 쉬지 않고 나가네. 두어 달 더 지나 계절이 바뀌어 봄기운 완연한 화창한 날에 도착한 곳. 관세음보살 모시는 관음선원이란 절이다.

그런데 이절 정말 수상하다. 온통 보배로 치장한 화려함에다 스님들 모두 개기름이 졸졸, 탐욕에 눈이 번들번들~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통해 전한 금란가사를 보곤 현장법사 일행 태워죽이고 가사를 빼앗을 음모를 꾸미네.

영험한 손오공이 이 김새를 모를 리 없다. 천궁에서 보배 빌어다 불길 막고선 엉뚱한 곳으로 불길 번지게 만들고는 불길에 부채질, 불나는 집에 부채질, 온 절을 활활 태워버린다.

뒷산에 노스님과 친분 있던 곰 요괴 한 마리 있어 불길을 보고 달려왔다가 금란가사를 보고 역시 눈이 뒤집혀 훔쳐가지고 달아난다.

결국 가사 행방 찾던 손오공과 요괴의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요괴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거기다 힘들다 싶으면 동굴 닫아걸고 숨어버린다. 제천대성의 묘한 솜씨로도 어쩔 길이 없다. 결국 관세음보살 모시는 관음선원에서 사단이 났다는 구실로 관세음보살님 모셔와 보살님 도움으로 요괴를 잡아낸다. 분기가 치민 손오공 여의봉 추켜드는데 보살님 말리신다.

"마침 절 지킴이가 필요했는데 잘되었구나 이 요괴가 근기가 관찮으니 데려다 써야겠다."

갑자기 요괴 신분에서 보살님 권속으로 주민등록지가 바뀐다. 손오공 여의봉 꺼낸 게 실거위된다. 하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가 아니라 요괴 쫓던 손오공 보살님 쳐다보기?

오늘은 저팔계를 만나려 했는데, 좀 의미 있는 대목이 있어 만남을 좀 미루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대로 관음선원에 들러 쉬는 사이 부처님이 전한 금란가사를 도둑맞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이 참으로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우선은 서유기 작가가 본 불교의 타락상이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네요. 온통 보배로 치장한 절, 200년을 넘어 살았다 하면서 불빛의 높은 경지는 보이지 않고, 보물에만 관심 있는 노스님, 결국 부처님의 금란가사를 탐내어 살인까지도 서슴치않는...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린 불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그림 아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성스럽다는 종교가 타락하면 가장 무섭게 타락하는 법이거든요. 기독교의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불교사에도 여러 번 그런 극단적인 타락상이 나타났었다는 게 이미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 멀리 갈 것도 없지요. 우리 한국불교에서도, 얼마 지나지도 않은 과거에, 종교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던가요? 명분이야 불이기가 나쁜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변명해도 종교 속에서 재물 때문에, 또는 성적인 문제 때문에 세속 사람들도 부끄러

워할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정하고 변명하려 하기보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올바른 종교로 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현지 우리의 불교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없이 나타났던 부끄러운 일들,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적당히 무마하고 호도하고 넘어가기에 바쁘지 않았는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는 무척 부족한 듯 합니다.

애고~, 부정적인 이야기 힘짜지는 이야기는 절기로 하였습니다. 잘못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그

재물에 대한 탐욕 극복 묘사

타락한 종교의 무서움 표현

관음보살, 악을 없애지 않고 계도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을 일으켜내는 일이라 말로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불교가 그러도 이만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이룩한 일이었습니까? 조선 왕조 500년간을 온갖 박해를 당하였지요? 스님들은 최하층 천민 취급을 받아 도성 출입도 못하였지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스님이 마을에 오시면 동네 아이들 "중~중~ 까까중~"하고 놀리며 줄줄 쫓아 다녔던 기억이네요. 조선 왕조 때 불교를 천시했던 영향이 저 어릴 때까지 남아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거기에 일본 식민지 지배 아래서 대처승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국불교에 지속적으로 암적인 문제가 될 요소가 심겨졌지요. 광복 이후 일본 불교의 잔재를 씻기 위한 노력인 정화불사... 퍼지 못하게 폭력이라는 요소가 불교 속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정신 차리지 못하게 쏟아져 들어온 서구 문명과 서양 종교들... 그 속에서 불교가 전통문화와 종교를 대표하면서 이만큼 살아남은 것만 해도 불교의 저력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요. 역사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질곡들을 벗어가면서 이 시대의 종교로 굳게 서기 위한 그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온 것이 현대 불교사의 자취 아닌가 싶어요. 그 가운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 모두 그것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말기로 하지요. 그렇다고 적당히 변명하고 자기합리화를 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비판은 언제나 영정한 시각에서 객관적이어야 좀 못 미칠지 모르지만, 손오공이 만만하게 때려잡을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다 좀 불리하면 자기 소굴로 들어가 문 걸어 잠



그림 · 최주현

장하는 바람에 이야기가 옆으로 흘렀네요. 아무튼 이 스님들 정말 대단해요. 그 가운데 그 사찰의 이름이 관세음보살 모시는 '관음선원' 이네요? 가장 나이 드신 큰 스님이 금란가사에 대한 탐욕으로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거기에 젊은 스님들이 일지단결 노스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온갖 꾀를 다 내네요. 결국 뒤가 가장 깨끗한 방법은 현장법사 일행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라는 자연스런 결론? 노스님이 그 귀한 금란가사를 하루라도 가까이 모시고 감상하고 싶다고 청하여 금란가사를 빌린 다음 밤에 현장법사 숙소에 방화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손오공이 거기에 당할 리야 있나요? 그런 일이라면 오히려 손오공이 단수가 훨씬 낫다고 할까요? 그 음모를 알아채곤 오히려 역이용하여 자신의 심술을 있는 대로 부러버리지요. 하늘에 가서 때를 써 현장법사 속소를 보호할 수 있는 보물을 빌어다 안전하게 만든 다음, 승려들이 지른 불길을 영동한 곳으로 퍼지게 만들죠. 불나 집에 부채질하기 신공(?)이랄까요? 그래서 온 절이 활활 타 버리고... 애고 불쌍한 스님들... 그런데 이 절의 뒷산이 흑룡산(黑龍山) 흑룡동이라네요. 이곳에 곰이 변한 요괴 하나가 살고 있었군요. 오랜 동안 수행을 쌓아온 곰 요괴, 탐욕부린 노스님과도 왕래가 있어 불길을 좀 잡아주려 왔다가 금란가사의 광채를 보곤 그것만 훔쳐서 달아나 버립니다. 결국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손오공과 이 곰요괴의 한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곰요괴의 경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하늘을 뒤집어 놓았던 손오공에야 좀 못 미칠지 모르지만, 손오공이 만만하게 때려잡을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다 좀 불리하면 자기 소굴로 들어가 문 걸어 잠

그고 상대를 하지 않는 작전으로 나오니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단이 일어난 절이 '관음선원'이라는 것을 빌미로 관세음보살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지요. 우리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결국 또 다시 달려오실 수밖에요. 여기서 우리 거룩하게 염불 한마당하고 갈까요? "특급소방수 구원투수 대자대비 구구구난 관세음보살 마하살~~~" 마침 곰 요괴에게 금단(金丹)을 선물하러 가는 요괴친구요괴를 만나 때려잡고, 잡고 보니 오래 묵은 늑대 요괴였네요. 보살님이 요괴친구요괴로 변신하고 손오공은 선물용 금단으로 둔갑을 하지요. 그래서 태연하게 요괴의 본거지로 잠입하는 계획으로 가는 것인데요. 이 때 손오공이 보살님 요괴변신을 보고 한마디 이죽거립니다. "대단하군요. 대단해! 요괴가 보살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보살이 요괴가 된 겁니까?" 감히 보살의 본래 면목을 문젠 삼은 손오공이군요. 거기에 대한 보살님의 응수, 이게 정말 이죽거리는 손오공의 입을 한방에 몽개버리는 우문현답(愚問賢答) 이상의 우문현답(愚問玄妙答)입니다. "오공아, 보살이나 요괴나 결국 한 생각일 뿐이지. 근본을 말한다면 모두 본래 없음이니라!" 보살이다, 요괴다 하는 결모습에 매달리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한 생각 잘못하면 요괴가 될 수도 있고,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보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일까요? 본디 요괴도 보살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바탕으로 돌아가면, 결국 모습 없고 빛깔 없는 근본 자리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무튼 엄청 우리 머리를

후려치는 사자후 범문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삼백선생의 느낌에 이 말씀은 정말 음미하고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한참 음미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지요. 이런 보살님의 엄청난 의미를 담은 말씀에 손오공도 무언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획 몸을 한번 뒤채는 순간 금단으로 변화를 하지요. 금단으로 변한 손오공이 요괴의 뱃속으로 들어갔네요. 아무리 요괴라도 뱃속에서 난동을 부리는 데야 무슨 수가 있나요? 결국 백기, 항복, 살려주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그래서 손오공이 분풀이삼아 여의봉 꺼내 단매에 때려죽이려 하는 그 순간! 보살님 급히 말리시네요. "잠깐! 그에 좀 슬레가 있구나. 죽이지 말거라!" 요괴 데려다 어디다 쓰시려나 했더니 보살님 사시는 낙가산 뒤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마침 잘되었다는 말씀~. 마음을 가라앉힌 요괴에게 계를 베풀어 주시고, 긴장을 잡게 하셔서 낙가산 뒤를 지키는 수산대신(守山大神)으로 임명하셨네요. 갑자기 요괴의 신분에서 보살님 거처를 지키는 신으로 호적이 옮겨져 버렸지요? 그런데 이 대목,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아까 나왔던 묘묘한 이야기, 보살이나 요괴나 한 생각이라는 말에 이어서, 요괴가 보살 문화로 호적을 옮기는 이야기... 무언가 연관성있는 이야기인데 틀림 없겠지요? 본래적으로 악한 존재가 따로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는 본래 악이 아니었어 버려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닌가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 또 세상의 풍조를 한번에 뒤집을 전기가 바로 이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 좀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암자·포교당 등 대·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2016년 7월 7일 (수) 7월 8일 (목) 7월 9일 (금) 7월 10일 (토) 7월 11일 (일) 7월 12일 (월) 7월 13일 (화) 7월 14일 (수) 7월 15일 (목) 7월 16일 (금) 7월 17일 (토) 7월 18일 (일) 7월 19일 (월) 7월 20일 (화) 7월 21일 (수) 7월 22일 (목) 7월 23일 (금) 7월 24일 (토) 7월 25일 (일) 7월 26일 (월) 7월 27일 (화) 7월 28일 (수) 7월 29일 (목) 7월 30일 (금) 7월 31일 (토)